

# 탈식민 문화의 양상과 근대 시민의식의 형성

— 최인훈의 『회색인』

오 윤 호\*

<목 차>

- I. 1960년대 문학과 근대 시민에 대한 문제제기
- II. 근대시민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
- III. 『회색인』에 나타난 왜곡된 근대경험과 탈식민 양상
  - 1. 의식의 원-체험으로서의 책읽기
  - 2. 국가의 발견과 관념적 연애의 비밀
  - 3. 성장의 원체험에 대한 기억하기
- IV. 근대시민의 윤리적 환멸과 탈식민성

## 【요 약】

본고는 최인훈의 『회색인』을 탈식민 문화 비평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탈식민지에서 근대 시민주체가 경험하는 왜곡된 근대 경험과 식민지 문화를 밝히고 시민의식의 형성과정과 그 문학적 재현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탈식민 주체에게 있어서의 책읽기와 국가의 발견, 낭만적 연애, 기억하기 등은 관념화된 근대적 가치를 수용하고 모방하는 지적통로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탈근대적 자아의 식민지 문화에 대한 전유이기도 하다.

---

\* 청주교육대학교

최인훈 소설은 식민지 역사에 대해 미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근대성에 대한 환상과 그것이 모순적으로 발현되는 현실에 대한 환멸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 집단에 대한 문제의식, 자기 주체성에 대한 혐오의식, 단지 무의식의 편린을 기술하는 소설쓰기는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 I. 1960년대 문학과 근대 시민에 대한 문제제기

본고는 최인훈의 『회색인』을 탈식민 문화 비평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탈식민지에서 근대 시민주체가 경험하는 왜곡된 근대 경험과 식민지 문화를 밝히고 시민의식의 형성과정과 그 문학적 재현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 후반 한국 문학은 이데올로기적 폐쇄성 안에 갇혀 있던 전후 문학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왔다.<sup>1)</sup> 독립이후 규율체계로서의 근대 국가는 성립했지만, 근대성을 실현해야 할 시민이 전쟁으로 인해 ‘생존에의 위기의식’, ‘존재론적 불안의식’, ‘윤리적 기만의식’ 등을 체험하면서 제도화된 현실로부터 삭제되었던 혹은 부재했던 시기가 1950년대였다.<sup>2)</sup> 최인훈은 바로 그 시기를 가로질러 작품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인훈은 인식론적인 우회를 거쳐 장편소설 『회색인』에서 ‘깨어나 보니 우리는 식민지 원주민이다’라는 선천적 친형을 선언하게 된다. 그의 초기작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와 실존적 자아의 대립적 문제의식은 이러한 당대의 분위기를 새로

1) 이재선, 「전쟁체험과 50년대 소설」, 김윤식·김우중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1995, p.335.

2) 하정일은 1960년대 문학의 특징을 주체의 복원이라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1950년대에는 “인간은 있되 주체는 없다”(『분단자본주의 시대의 민족문화사론』, 소명출판, 2002, p.212)라고 말한다.

운 소설 양식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 받아왔다. 최인훈 소설은 일제 시기의 정치적 폭압성과 6.25 전쟁을 전후로 한 이데올로기 국가의 정치 탄압을 자율적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권력구조로 동일시하며 비판한다. 그러나 기존의 비평 작업들이 『광장』에서 제시한 근대 지식인의 우울한 고뇌와 방향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에 기만당한 주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식민지 근대국가와 시민의 권력적 관계, 근대적 지식인의 저항의식과 수용<sup>3)</sup>, 내재화된 식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전 다시 쓰기의 전략 등 다양한 껍으로 중첩되어 있는 최인훈 문학의 본질을 속 시원하게 드러내지는 못했다.

사실, 최인훈의 『광장』, 『회색인』, 『서유기』는 식민지를 경험한 ‘근대 시민의 의식 여행’ 3부작이다. 이상적 국가체계를 꿈꾸며 식민지 시기의 일본 제국과 서구의 이데올로기로 성립한 국가가 폭력적 권력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깨달은 이명준의 지리 여행, 국가에 저항하기 위해 혁명과 도피의 이중적인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성장의 기원을 탐색하며 근대적 시민이 되려고 하는 독고 준의 역사 여행, 기억상실증에 걸린 독고준이 거대 서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원초적 사건을 체험했던 W시를 찾아가는 무의식 여행. 이 세 소설은 식민지 문화의 특성이 어떻게 근대 시민의 삶 속에 내면화되어 가는지 그 여정을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여정은 ‘철저하게 얽매어 있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의 가능성, 자율적 사유와 긍정적 근대인으로서의 확신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즉, 근대 시민의 구성 가능성을 탐색하며, 그 기원이 되는 식민지 경험과 근대적 경험의 착종을 밀도 있게 탐색해 나가는 고고학적 작업을 최인훈은 소설 쓰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회색인』은 그러한 왜곡된 근대적 경험들(책읽기, 연애·사랑, 기억하기)을 재현하며, 주체가 아닌

3) 김건우, 「현대 한국문학의 실존주의 수용에 있어 ‘참여’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 비교문학 29집, 2002, p.176.

근대적 타자에 대한 기획, 타자와 자아 사이에 놓인 권력적 관계망을 재배치할 이성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한 글쓰기, 근대적 시민이 소유한 선택(양자택일의 순간)과 욕망(자율적 인간으로서의 존재의식)을 재해석하려고 한다. 본고에서는 그 재해석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 II. 근대시민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

근대문학의 성격을 논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은 근대문학에 있어서의 식민지 상황을 1910년대부터 1945년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식민주의 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모든 문화’<sup>4)</sup>에 대해 재해석을 요구하는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보자면, 1945년 독립 이후 역시 또다른 식민주의 시대이다.<sup>5)</sup> 이렇게 한국 근대사에서의 ‘식민지 상황’을 확대하여 보려는 이유는 한국 근대사에서 억압의 조건으로 존재했던 식민 담론의 성격을 정치적 주권 개념에 한정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문화적 담론 체계로서 인식하려는 것이다.<sup>6)</sup> 일본 침략기와 같이 식민담론이 구체화되고 제도화되

4) 빌 애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옮김,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89, p.12.

5) 제국주의를 ‘한 국가나 민족에 의한 다른 비슷한 집단들에 의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치적·경제적 지배나 통제, 혹은 그러나 지배나 통제를 확립하려는 충동이나 노력, 성향’이라고 포괄적으로 개념화(박지향, 『제국주의 - 신화와 진실』, 서울대 출판부, 2000, p.18.)했을 때,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서구 열강의 정치적 군사적 자장 안에 놓여 있는 현재도 잠재적인 식민지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6) 탈식민 문학이란 독립 이후의 흔히 말하는 탈식민 시대에 씌어졌던 문학뿐만 아니라 독립 이전의 식민 시대에 씌어졌던 문학을 통틀어 문화적 정치적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담고 있는 문학을 일컫는다.

고부웅,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학과지성사, 2002, p.15.

있던 시기에만 식민담론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도 식민담론이 여러 담론들과의 잠재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편재했다. 따라서, 식민 주체의 정체성은 정치적 억압만으로 구성되기보다는, 보다 습속화되고 문화화된 식민 담론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식민지 경험은 보편적이고 이념적인 제국의 이항대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식민지 각각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문화적 특성이 생성되는 장이기도 하다.<sup>7)</sup> 식민지 경험은 이미 약호화된 식민지 삶의 질서, 이미 계열화된 경험들을 통해서 생겨난다. 따라서 식민 주체의 식민지 경험은 식민지 현실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의 혼재와 충돌을 드러내며, 특히 식민지 문화 속에서의 식민지 주체의 구성 과정을 잘 보여준다. 즉, 식민지 경험이란 식민 주체를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식민 주체의 정체성이 구현되는 역사적 상황이기도 하다. 즉, 제국과 식민 주체 사이의 규율적 권력 관계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식민 담론의 효과이며 의미가 된다. 가령, 『무정』에서 인물들은 기차 여행을 하면서 민족 계몽에 대한 필요성과 자아각성의 당위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기차’란 근대적 문명의 총화이면서 자아 각성의 표상이 된다. 그러나 그 ‘기차’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의 수탈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한 비극성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듯 식민지 경험은 그 재현적 국면에서의 서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식민 담론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 매우 주요한 징후가 된다.

식민지 상황은 순전히 지배자의 논리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피

7) 이러한 시각은 질 들뢰즈의 ‘사건’에 대한 서술에서 영향을 받았다. “인간에 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이미 존재하는 문화 장 내에서 계열화되며, 계열화되는 순간 의미로 화한다. 물리적 변화 그 자체로서는 무의미이지만, 문화 세계 내에서 계열화됨으로써 의미로 화하는 것이다.”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한길사, 2003, p.29.)

지배자와의 상호 작용 안에서 생겨나는 식민담론의 작용이라는 점, 그리고 식민담론은 일정한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립 이후에도 잠재적 식민성을 드러낸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성격을 소설 텍스트에서 찾아낼 때 특정한 식민지 경험을 재현하는 서사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야 한다는 점들을 확인했다. 이때의 식민지 경험이란 일제 식민지 치하의 현실을 경험한 작가들의 개인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 속에 미적 형식으로 구현된 식민지 경험이다. 식민지 시대의 근대소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 주체가 보여주는 식민성의 경험과 심리 상태<sup>8)</sup>, 그리고 그것들과의 관련 속에서 파생되는 소설의 미적 양식화의 문제를 천착할 필요가 있다.

### Ⅲ. 『회색인』에 나타난 왜곡된 근대경험과 탈식민 양상

#### 1. 의식의 원-체험으로서의 책읽기

최인훈의 『광장』, 『회색인』, 『서유기』에는 책을 읽는 장면이 많이 재현된다. 이미 이광수의 『무정』,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와 같은 식민지 시대 소설에서 인물들은 자신이 꿈꾸는 근대적 지식인, 생활인의 모형을 자신들이 읽는 책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다.<sup>9)</sup> ‘책읽기’는 근대 지식인의 생활 경험이었으며, 서구 근대와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단적인 제국-식민 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이

8) ‘문명인’과 ‘원주민’간의 조우가 식민주의와 같은 독특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동시에 심리주의적 분석을 통해서만 근원 추적 및 규정이 가능한 일련의 망상과 오해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프란츠 파농, 『검은피부 하얀 가면』, 이석호 역, 1998/2003, p.109.

9) 김경수, 「근대 소설 담론의 유입과 형성과정」, 성현경 외, 『전환기의 서사담론』,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1998, p.128.

루어진 식민지 경험이였다.<sup>10)</sup> 즉, 직접적인 체험 영역에서 경험하는 근대 삶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상상적인 경험이었던 것이다. “책읽기와 소설 수용의 문제에는 식민지 시기의 ‘정치’, 곧 ‘식민성’과 자본주의하의 계층 분화 문제가 함께 가로놓여 있다.”<sup>11)</sup> 이러한 독서 체험은 사회와의 유기적 소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공적 공간이 아닌 ‘하숙방’과 같은 사적 공간은 한편으로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폐쇄 공간이면서 스스로의 관념적 사유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최인훈 소설에서 책읽기는 서구 보편적 이성애 기댄 자아의 세계인식을 위한 근대인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 재현된다.

소년 독고준은 그의 독서를 통해서 눈부시게 다채로운 현상의 저편에서 울리는 생명의 원 리듬, 혹은 원 태생을 찾아낸 것이었다.

.....

그는 밤나무숲에 누워서 책을 읽었다. 짜르의 기병들이 달려가고 있었다. 폭음이 들린다. 눈을 들어보면 멀리 도시에서는 검은 연기와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다. 폭격기가 오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책으로 고개를 숙였다. 소년은 산림관원의 산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도시의 하늘에서 B29들은 살찌고 미끈한 사지를 눈부시게 뒤편에서 죽음의 검은 강철 촉매(觸媒)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땅 위에서는 노예처럼 유순한 도시가 그때마다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몇 개나 될지 알 수 없는 뼈다귀가 으스러져간다. 그런 것은 아무튼 좋은 것이다. 소년은 뜨거운 여름날 산장으로 오르는 길을 걷고 있었다. 소녀는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고 농민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란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이상한 아이였다. B29들은 커다란 원을 그리며 곱돌아 들면서 공격한다. 마치 상처를 입은 짐승에게 달려드는 사냥개들처럼.

(『회색인』, 39면)

10) 백천풍, 『한국 근대문학 초창기의 일본적 영향 - 문인들의 일본 유학 체험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 1981, 참조.

11)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p.47.

『회색인』에서 독고준의 책읽기 특히 소설 수용 문제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충돌 속에서 벌어지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내는 내재적 식민성(왜곡된 근대성)의 문제를 표출한다. W시에 대한 B29의 폭격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소년 독고 준은 밤나무숲에서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소설을 읽는다. 전쟁을 상징하는 강철덩어리들이 만들어내는 폭음과 책읽는 소년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침묵. W시의 변두리에서 전쟁 시기를 보내는 어린 독고준에게 B29 폭격기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 아래 있던 2차 대전 말기에 가끔 엉뚱하게 울리곤 했던 ‘적기 내습’의 경보였으며, ‘어른들 역시 전쟁은 눈에 보지 못한 동화(童畵)’였다. 그만큼 전쟁이란 어린 독고준에게 있어 경험할 수 없는 먼 ‘풍문’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낯선 일이었고 소설책의 내용보다도 하찮은 것이었다. 단지 그의 관심을 가득 채웠던 건 ‘『집없는 아이』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에 대한 모방<sup>12)</sup>이 가능할 것인가에 있다. 그에게 전쟁 체험과 소설이라는 허구 체험은 동일한 감각 속에서 지각된다. 그는 자칭 ‘성장소설’을 읽으며 ‘선량하고 용기 있는 소년이 세상을 이기고 씩씩한 청년이 되어 이쁘고 영리한 색시를 얻는’ 세계를 꿈꾸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그의 소유’로 남는 자신만의 허구적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그의 독서행위는 지도원동무의 비난처럼 부르주아의 낭만적 인식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인 것이다. 즉, 독서를 통해 독고 준은 근대인, 문화인이 되어간다. 이미 식민지의 피지배자 혹은 근대국가의 국민은 정전화된 관념적 세계를 책읽기를 통해 동일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주체성과 성장을 꿈꾸게 된 것이다.

이렇듯 최인훈 소설에 재현된 책읽기는 근대적 자아에 대한 기획이면서 관념화된 근대 가치를 수용하고 모방하는 지적통로의 역할을 한

12) 모방mimicry은 식민지 권력과 지식의 가장 교활하고 효과적인 전략의 하나로 나타난다.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p.178.

다. 그러나 근대 기획과 관련이 있는 그 책읽기는 작가적 현실과 대비되고 전유됨으로써, 근대 시민의 왜곡된 성장의 불완전성과 거대 서사의 거짓 진술을 폭로하기에 이른다.

## 2. 국가의 발견과 관념적 연애의 비밀

체제와의 갈등은 독고준으로 하여금 시민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한다. 독고준은 국가와 시민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실 광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광장과 密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명준의 정치적 편력을 분석한다. 이명준은 남한을 ‘비루한 욕망과 탈을 쓴 권세욕과 섹스만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인식하며 밀실은 있으나 광장에 사람이 없는 형국을 비판하고, 이북은 ‘혁명과 인민의 탈을 쓴 부르주아 사회’일 뿐이며 광장만 있고 밀실이 없는 사회라고 비판한다. 이명준의 논리대로 풀자면, 광장과 밀실 어느 한 쪽만 존재하는 사회는 근대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명준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란 밀실과 광장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총체성이 이룩된 유토피아적 근대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유토피아적 근대 사회란 우리는 소유하지 못하는 ‘서구의 것’이다.

우리 세대에는 내셔널리즘이란 일본에 대한 반항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밖에는 없고 긍정적인 면은 없어. 왜냐하면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야. 반항할 상대는 있어도, 사랑할 대상은 없었다는 것. 이것이 서양 내셔널리즘과 우리들의 것과의 틀린 점이지. 서양 사람들에게는 짓밟을 식민지와 사랑할 조국이 같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만 사랑할 조국은 있으나 빼앗을 식민지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조국 속에 갇혀 있어. 그 조국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의 목줄기를 물고 있다면 이 이상 나쁜 상황이란 좀 체로 찾기 힘들 거야. (『회색인』, 125~126면.)

『회색인』의 독고 준은 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서구의 상황을 맞비교 하면서 그 열등함을 강하게 자각한다. 물론 그 근거는 우리나라에는 전통과 역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생활의 깊은 내면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들추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내적 독백도 ‘국가’라는 근대적 형태의 지배 체제에 있어서 서구와 한국 사이의 차이를 논하고 있다. 국가주의nationalism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식민지를 가져야 한다’는 단서를 통해서 보자면 독고 준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주의란 타민족을 억압하고 식민지화하려는 제국주의 국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제국의 피식지인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독고 준은 자신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걸 식민 국가의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어처럼 들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술은 예술대로 뒤쳐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혁명이란 꿈도 꾸지 못할 낭만적 이상이라고 선언하는 독고 준은 ‘한국은 근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통해,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 자각한다. 자신들의 삶이 억압을 당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그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당하게 근대적인 삶의 모형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어떠한 발전적 미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물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없음만 경험하게 된다. 작품 속에서 혁명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도 불합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혁명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실패를 전제로 하는 혁명이라면 그것 역시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아닌 것이다.

사실,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내밀하게 작동하는 국가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비로소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대의 현실을 깨달으면서 능동적인 의지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획득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가 자신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호명하지 않을 때), 현실로부터 소외

시키는 그 순간부터 ‘나’의 정체성은 위기를 맞게 되고, 더 이상 현실을 변화시킬만한 힘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을 근대 시민으로 인식하는 주체와 철저하게 그러한 주체를 외면하는 국가 사이의 갈등은 개인이 근대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이명준과 독고 준은 근대국가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국가로부터 정치적인 소외를 당한다. 그래서 ‘왜 나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정치적 조건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국가 이데올로기 체계의 모순성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식민 담론 속에서 식민지 주체를 구성하는 일과 식민 담론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서로 다를 것 같지만 차이의 형식들을 접합할 것을 요구한다.”<sup>13)</sup>

그런 점에서 연애·사랑의 경험은 근대적 문화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회색인』에서 사랑은 혁명에 대응되는 ‘타락한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처럼 제시된다. 권보드레는 『연애의 시대』에서 연애 사랑의 담론을 유행시킨 것은 구한말부터 일제 시기까지 이어졌던 일본유학생들의 독서 경험(각주 처리)이었다고 말한다. 즉, ‘연애’라는 식민지 경험은 실생활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식민지 지식인의 ‘독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서구의 근대적 생활 감정이었다.<sup>14)</sup> 정치적 담론과는 구별되는 근대인의 일상 이면에 존재하는 연애·사랑의 담론은 가장 감상적이고 개인적인 인식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타자에 대한 사랑은 텅빈 자기 동일시로 인한 불안한

13) 호미 바바, 앞의 책, p.147.

14) “<자유연애>는 192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한 <신여자>와 함께 퍼진 유행어가 되고 유행사조가 되었다. 일본을 통하여 건너온 근대 서구 사상의 충격으로 근대적 자각의 물결이 조선에도 일었고, 이를 반영한 유명한 작품이 이광수의 『무정』임은 주지된 사실이다.”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지각, 1991, p.169.

자아 정체성을 의미한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랑을 통해 감정적인 타자를 설정함으로써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수직적 권력 관계를 전도하여 남자와 여자라는 수평적 관계로 내면화하게 된다. 즉, 사랑·연애 담론은 식민담론의 상징적인 축소판이다.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체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식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식민지 주체의 환영이었으며 식민지 시대의 권력 관계가 일상의 삶 속으로 침투한 것이다. 근대 문학은 관념적 연애, 모방적 이성애를 통해서 근대적 주체를 꿈꾸는 모순을 내포한다. 이러한 사정은 최인훈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몹시 괴로워서 마침내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나의 여자 친구를 찾아가서 여자여차 자초지종을 말하고 묘안의 유무를 물었다. 그녀는 먼저 나의 애국심을 칭찬하고 난 다음 말하는 것이었다.

“식민지의 대용물을 찾아야죠.”

“대용물?”

“그렇죠. 이제 식민지야 어떻게 얻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런 효력이 있는 다른 걸 찾아야죠.”

“막 뺏고, 밟고, 퍼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것이, 에이 여보쇼, 어딴단 말씀이요?”

“있지요.”

“뭘니까?”

“사랑과 시간.”

나는 경악하며 넉넉히 십 분 남짓을 망연자실한 끝에 모기 소리만하게 대꾸한 것이다.

“여자여 그대의 언(言)이 미(美)하도다.”

그리고는 그녀를 미친개처럼 키스하였다.

(『회색인』, 10~11면)

위의 내용은 작품 속에서 독고준이 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독고준은 타락한 세계에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혁명 대신에

‘사랑과 시간’을 주장한다. 이때, 혁명에 대한 논리적 해석과 사랑과 시간의 윤리에 대한 해명은 최인훈 소설이 ‘현실’과 ‘에고’의 싸움 속에서 어떠한 실천적 행위를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혁명과 사랑은 정치적 현실의 모순성을 해결하기 위한 젊은 청년의 자구책이다. 그리고 혁명이나 사랑 모두 뜨거운 열정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혁명의 경우는 그것이 성공했을 때 자신의 주의·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신념과 믿음의 동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랑의 경우는 타자로서의 연인이 내 사랑의 열정을 공감함으로써 감정적 동일시를 경험해야 한다. 젊은 청년이 할 수 있는 혁명과 사랑 중에서 독고준에게는 혁명을 행할 수 없기에 사랑만이 남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사랑은 정치의 실천적 장에서는 현실과의 타협이면서 자기 변명의 행위로 변질된다. 사실 『광장』이나 『회색인』에서 ‘사랑’은 혁명을 해야 할 급박한 순간에 거대한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실천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끝내 더 이상 행동할 수 없음으로써, ‘나’가 아닌 타인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피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제국에 대한 탈식민적 저항’의 양상이다. 이명준이나 독고준의 사랑은 불완전한 현실적 사랑과 관념적 지향의 사랑이라는 이중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 『광장』에서 이명준이 윤애를 사랑할 때도 그는 자신을 탄압하는 경찰과 무묘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의 몸과 감정을 요구했었다. 이명준에게 있어 사랑이란 이데올로기적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였다. 『회색인』의 독고준 역시 가난한 일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이유정의 돈과 생활을 탐한다. 독고준에게 있어 사랑은 비참하고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만적인 감정이다. 이러한 기만적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간’의 윤리를 제시하지만 자신이 꿈꾸는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세우지 못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이해 역시 불쾌한 자위 행

위로 끝나고 만다.<sup>15)</sup>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사랑이란 현실적인 실체와 열정적인 대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관념 속에서 사유를 통해 잉태된 감정이며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이해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잘 못과 헛된 바람과 헛믿음’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진실한 삶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말의 둔갑으로 재주놀이하는, 끝없는 오뚜기 놀음’(『광장』, 71면)을 행할 뿐이다.

### 3. 성장의 원체험에 대한 기억하기

최인훈 소설의 인물들은 이데올로기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근대 시민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인물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동일한 이데올로기적인 폭력 구조 안에서 근대 시민이 아닌 억압받는 민중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시대가 지나고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개인의 삶은 일본 제국주의 때의 신민과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경찰의 억압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가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폭력적 담론의 대상으로만 기능하도록 조장했던 것이다. 『광장』에서 이명준 역시 폭력적인 국가권력 안에서 ‘발 끝에 짓이겨지는 개미’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는 시민에 대해 지각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러면서 ‘나는 법률 밖에 있는건가’라는 자조적인 토로를 한다. 마찬가지로 『회색인』의 독고준 역시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회의를 품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스스로의 실존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은 바로 생활의 현재에서 실존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서유기』의 독고 준은 W시의 체험을 향해 길고 긴 무의식의 여행을 감

15) 이태동, 「사랑과 시간 그리고 고향」, 『최인훈』, 서강대출판부, 1999, p.231.

행한다. 그는 고향인 W시로 향해야 한다는 강박적 의식만 소유할 뿐, 자신의 정체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 폭력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sup>16)</sup> 그 여행은 독고 준의 회상으로 『회색인』에서 이미 중요하게 재현되었다. 바로 그 순간의 기억은 최인훈 소설 3부작에서 중요한 복합적인 식민지 경험(홀로코스트의 순간, 이데올로기 대립의 순간, 소년의 정신적 성장의 순간)이 되고 있다. 식민지 이후(통일 이후)에 식민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재현의 욕망과 담론적 억압이라는 이중의 역학을 견뎌야 한다. 이때, 기억 속에 남은 치욕의 역사를 재현하기 위한 견고한 윤리의식은 어쨌거나 제국 식민담론의 영향과 생물학적인 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인훈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기억의 대상은 ‘근대 역사의 기억’이며, 바로 그 기억은 근대 시민의 자의식과 그 근원적 성장을 문제삼는 근대 시민의 사적 기억이다.

찢어지는 듯한 쇠소리가 머리 위를 달려갔다. 뒤를 이어 또 또. 공습. 닫혔던 문이 열렸다. 준의 누님 또래의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달려나 오면서 준의 팔을 잡았다. 준은 여자가 끄는 대로 달렸다. 어디서 나왔는지 그들의 앞뒤에는 사람들이 달리고 있었다. Jet기들은 낮게 날면서 총을 쏘았다. 준과 여자가 가까운 방공호에 다다랐을 때에는 와랑거리는 폭격기의 엔진 소리가 하늘을 덮었다. 방공호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뒤로 자꾸 밀려들었다. ㄱ자로 구부러진 호(壕) 속은 캄캄했다. 준과 그녀는 아직도 손을 잡고 있었다. 세찬 소나기가 퍼붓듯 쏟아지는 소리에 이어 쿵, 하고 멀리서 땅이 울렸다. 그 소리는 같은 짊을 두고 이어졌다. 캄캄한 속에서 사람들은 말없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람의 혼김과 정오 가까운 한여름의 열기로 굴 속은 숨이 막혔다. 폭음이 점점 멀어져간다.

그때 부드러운 팔이 그의 몸을 강하게 안았다. 그의 뺨에 와 닿는 또

16) 이미숙, 「한국 근대 문인의 고향 의식 연구 - 김기진, 정지용, 오장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 23집, 한국 비교문학회, 1999. pp.113~115.

거운 뺨을 느꼈다. 준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숨이 막혔다. 살냄새. 멀어졌던 폭음이 다시 들려왔다. 준의 고막에 그 소리는 어렴풋했다. 뺨에 닿은 뜨거운 살. 그의 몸을 끌어안은 팔의 힘. 가슴과 어깨로 밀려드는 몽클한 감촉이 그를 견잡을 수 없이 형클어지게 만들었다. 폭격은 계속되었다. 폭탄이 떨어져오는 그 쩡 소리와 쿵, 하는 진동 소리는 한결 더한 것 같았다. 준은 금방 까무러칠 듯한 정신 속에서 점점 심해가는 폭음과 그럴수록 그의 몸을 덮어누르는 따뜻한 살의 압력 속에서 허덕였다. 폭음. 더운 공기. 더운 뺨. 더운 살. 폭음. 갑자기 아주 가까이에서 땅이 울렸다. 아우성 소리. 폭음. 살 냄새……

(『회색인』, 49~50면)

독고준의 전쟁 체험은 'W시의 그 여름 하늘을 은빛의 날개를 번쩍이면서 유유히 날아가는 강철새들의 그 깃소리'로 구체화된다. 매우 낭만적으로 표현해 놓았지만, 이 표현은 원산 폭격을 위한 미군 비행기의 비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량 파괴와 집단 학살을 동반한 것으로 전쟁의 폭압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년의 독고 준이 경험한 원산 폭격 장면은 최인훈의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회상되고 재현된다. 이 원체험은 아련한 낭만적 감성에 가득 찬 풍경으로 묘사되는데, 풍문처럼 동화처럼 떠돌던 전쟁의 폭력적 힘 앞에서 죽음과 삶의 모호한 경계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며, 그러한 실존적 정체성과 더불어 지도원 동무와 독고 준 사이에서 불거진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허위성이 폭로되는 지점이고, 여성의 신체를 경험함으로써 독고 준의 성적 정체성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W시에서 온 민청원이 전해준 학생 소집령에 나가기 위해 부모가 말리는 것도 마다하고 W시의 거리를 헤매던 독고준은 '동화'와 같은 전쟁이 아니라, 실제 죽음을 전제로 한 전쟁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B29의 폭격을 직접 체험하게 됨으로써 소년 독고 준이 품었던 낭만적인 세계와 성장에 대한 욕망은 깨어졌다. 이 원체험의 순간은 소년에서 성인으로, 비이념적 인간에서 정치적 인간으로, 독고준의 존재성이 고

립된 개인에서 사회적 존재로 전환되는 제의적 순간이다. 그리고 이 순간 그가 두려웠던 것은 ‘찢어지는 쇠뿔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의 공포’였다. 허구물 속에서 경험했던 ‘나나’의 알몸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더운 뺨, 더운 살’이었다.<sup>17)</sup> 이때 방공호는 ‘생활’을 위해 더 이상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폐쇄적인 사적 체험의 공간<sup>18)</sup>을 형성하며, 자아 중심적인 인식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근대적 주체의 잉태 공간으로 상징화된다. 공적 역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위의 장면은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과정에서 폭력적인 살해를 동반한 것으로 정치적 호출에 순수한 아이가 대답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독고 준은 이데올로기적인 호출에 대답하며 ‘가면을 뒤집어 쓴 제국주의’의 타자가 되지 않고, 자신의 생체험을 통해 개인의 사적 역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적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하이얀 얼굴, 따뜻한 팔, 뜨거운 뺨, 향긋한 살 냄새, 그리고 최초의 포옹’, ‘방공호 속에서 일어난 일은 몸으로 겪은 일이다. 그는 겹겹이 둘러싸인 이야기의 세계에서 처음 이 세계 속으로 밀려나왔다.’ 독고 준은 ‘소년의 속에서 점화된 욕망의 빛’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반이데올로기-주의자로서의 성향을 가지게 된다. 최인훈 소설의 인물들이 어떠한 여자도 사

17) “『나나』에서 그는 무엇인가 설레는 것을 알아보고 있었다. 백작이 보는 앞에서 나나가 알몸뚱이가 되어 맨틀피스를 향해 서서 불을 쫓을 때 그는 가슴을 두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유리 하나 저편의 세계였다. 방공호 속에서 일어난 일은 몸으로 겪은 일이었다. 그는 겹겹이 둘러싸인 이야기의 세계에서 처음 이 세계 속으로 밀려나왔다.”(『회색인』, p.54.)

18) 이안 와트는 “근대의 리얼리즘은 개인의 감각들을 통해서 진실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소설의 주된 판단기준은 항상 독특하고 그러므로 개인적 경험의 진실”이라고 말한다. 즉, 개인주의의 발생은 사적이며 이기적인 정신적 삶을 조장했으며, 개인은 사회적 삶의 패턴을 보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은 근대 소설의 형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안 와트, 전철민 역, 『소설의 발생』, 열린책들, 1988, 1장과 6장 참조.

량하지 못하면서 이 과거 속으로 퇴행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세계의 질서를 거부했던 순간이며 자신의 관념적 사유하기를 촉발시킨 생 체험과 이데올로기적 체험의 충돌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독고 준은 이데올로기의 억압성과 비극적 상황으로 연출되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은 원체험의 순간에 발생한 이데올로기적 호출과 자율적 욕망 발현 사이의 모순성을 해명하지 못한다. 독고준은 “적응과 소외라는 이율배반적인 갈등 속에서 성장해간다. 그는 ‘책의 밀실’ 속에서 지식의 관념을 살찌우며 독서체계에 적응된 인물로 변모하는 반면, 그 자신을 현실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역사에서 이탈한 소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19)</sup> 이후에 이명준이 ‘광장’에 집착하는 것은 이러한 방공호의 체험이 변형된 것이다. W시에서의 쫓김은 무차별적 살해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새로운 개인적 삶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 원체험에 대한 서술과 미화는 독고 준 자신의 존재성을 해명할 유일한 통로이지만 한편으로는 전망없는 미래의 우울한 현실이 체화된 미로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회상의 공간 속에서 독고 준은 빠져나올 수 없다.

#### IV. 근대시민의 윤리적 환멸과 탈식민성

이상에서 『회색인』의 최인훈 소설은 식민지 역사에 대해 미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근대성에 대한 환상과 그것이 모순적으로 발현되는 현실에 대한 환멸감을 표시한다. 이러한 글쓰기의 기원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소외된 근대 주체가 총체화된 근대 세계를 꿈꾸지만 그것의 실현

19) 송재영, 「분단시대의 문학적 방법- 《서유기》에 대하여」, 『서유기』, 문학과 지성사, 1977/1996, p.301.

불가능성을 확인한 이후에 알아챈 좌절감에 있다.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심리적 이해는 식민 담론 속에서 구성되는 식민주체의 정체성을 서술하는데 효과적이다.

책읽기는 근대적 자아에 대한 기획이면서 관념화된 근대적 가치를 수용하고 모방하는 지적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근대적 기획과 관련이 있는 그 책읽기는 작가적 현실과 대비되고 전유됨으로써, 근대 시민의 왜곡된 성장의 불완전성과 거대 서사의 거짓 진술을 폭로하기에 이른다. 『회색인』에서는 국가의 폭력적 권력을 인식하는 주체가 등장한다. 이는 국가와 시민이 상호 소통을 할 수 없는 모순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랑은 혁명에 대응되는 ‘타락한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근대문학에 나타난 관념적 연애, 모방적 이성애는 근대 주체가 꿈꾸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독고준에게 있어 사랑은 비참하고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만적인 감정이다. 최인훈 소설에서 기억하기는 ‘근대역사의 기억’이며 근대 시민의 자의식과 그 근원적 성장을 문제삼는 근대시민의 사적기억이기도 하다. 방공호에서의 체험은 처음으로 세계의 질서를 거부했던 순간이며 자신의 관념적 사유하기를 촉발시킨 생체험과 이데올로기적 체험의 충돌지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탈식민 주체에게 있어서의 책읽기와 국가의 발견, 낭만적 연애, 기억하기 등은 관념화된 근대적 가치를 수용하고 모방하는 지적통로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탈근대적 자아의 식민지 문화에 대한 전유이기도 하다.

『광장』이 철저하게 개인적 실존에 대해서, 국가나 민족이라는 거대한 조직이나 집단을 거부하면서 그리고 이에 대립하는 자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회색인』은 지식인인 대학생이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를 새롭게 써내려간 자전적 서술이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타락한 권력에 타협하든 거짓 사랑을 갈구하던 그에게 있어서 근대국가를 기획한 근대 시민으로서의 순결성이나 진실함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현실은 혁명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의식 여행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서유기』에 이르러서 자신의 의식마저도 문제시하고 혹은 무의식의 자유로운 의지만을 믿고 길고긴 지옥 여행을 감행하는 것이다.

최인훈 소설은 겉으로 보면 이명준, 독고 준 등 우울한 지식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근대인들의 의식의 좌절과 소외의식을 재현하는 듯하지만, 근대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경험에 대한 철저한 탐색 과정을 통해 식민 권력의 내재화 과정을 인식하고 분쇄할 담론적 해체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국가 집단에 대한 문제의식, 자기 주체성에 대한 혐오의식, 단지 무의식의 편린을 기술하는 소설쓰기는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 개인의 경험과 무의식적 충동이 그 어떠한 역사적 담론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탈식민주의(postcolonial), 책읽기(reading), 국가(nation), 근대 시민(modern civil), 주체(subject), 관념적戀愛(ideal love), 모방적 이성애(mimic heterosexual-love), 기억하기(remembering), 사유하기(thinking), 식민지 문화(modern-subject), 전유(colonial culture), 모방(appropriate, mimicry)

## 참고문헌

### 기본자료

최인훈, 『회색인』, 문학과사상사, 1977/1996.

### 연구자료

고부웅,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학과지성사, 2002, p.15.

- 권보드레, 연애의 형성과 독서, 《역사문제연구》 제7호, 2001. 12.
- 김건우, 1950년대 후반 문학과 <사상계> 지식인 담론의 관련 양상연구, 서울대 박사, 2001
- 김건우, 「현대 한국문학의 실존주의 수용에 있어 ‘참여’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 비교문학 29집, 2002, p.176.
- 김경수, 「근대 소설 담론의 유입과 형성과정」, 성현경 외, 『전환기의 서사담론』,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1998, p.128.
- 김성곤,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1992 여름.
- 박지향, 『제국주의 - 신화와 진실』, 서울대 출판부, 2000, p.18.
- 백천풍, 『한국 근대문학 초창기의 일본적 영향 - 문인들의 일본 유학 체험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 1981.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지각, 1991, p.169.
- 송재영, 「분단시대의 문학적 방법- 《서유기》에 대하여」, 『서유기』, 문학과 지성사, 1977/1996, p.301.
- 이미숙, 「한국 근대 문인의 고향 의식 연구 - 김기진, 정지용, 오장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 23집, 한국 비교문학회, 1999. pp. 113~115.
- 이안 와트, 전철민 역, 『소설의 발생』, 열린책들, 1988, 1장과 6장 참조.
- 이재선, 「전쟁체험과 50년대 소설」, 김윤식·김우중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1995, p.335.
- 이태동, 「사랑과 시간 그리고 고향」, 『최인훈』, 서강대출판부, 1999, p. 231.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p.47.
- 하정일, 『분단자본주의 시대의 민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p.212.
- 빌 애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옮김,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89, p.12.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한길사, 2003, p.29.

프란츠 파농, 『검은피부 하얀 가면』, 이석호 역, 1998/2003, p.109.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p.147, p.178.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 Key Concepts in Post-colonial Studi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8.

<Abstract>

A Study about the Condition of Post-Colonial Culture  
and the Formation of Modern Civil consciousness

Oh, Youn-Ho

This Study analyses Choi In-Hun's *A Ash-Man* by postcolonial culture critic, presents the distorted modern(colonial) culture experienced by modern subject in post-colony, and wants to make clear the formation-process of civil consciousness and the reappearance-mode of this novel.

The reading plays a role the intelligent-passage to project a modern subject and copy ideal modern value. That act appropriated by postcolonial subject exposures a modern civil's distorted-growth and the untruth-statement of grand modern narrative.

*A Ash-Man* represents the subject to understanding the violence-authority of a nation. That Means the condition that a nation and a civil do not communicate each other. So, Love become only means to relieve a corrupted society. But ideal love, mimic heterosexual love in korean modern novel connotes the contradiction of modern subject' dream. Dok Go-Jun's love is the deceitful emotion for getting out of the life in misery and poverty.

Remembering is the memory of modern history, and the privacy memory about modern subject's self-consciousness and growth. The experience in anti-air-raid establishments means a moment that he rejects world-order and starts a ideal-thinking.

His novel maintains the esthetic-distance about colonial history,

shows the disillusion toward a fantasy about modern society. The novel-writing treating a question of a nation, a disgust-consciousness of self-identity and unconsciousness is a model of the postcolonial-writings.

오윤호  
청주교육대학교  
전화: 011-9701-0385  
e-mail: [fictusid@nate.com](mailto:fictusid@nate.com)

이 논문은	2006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6월	30일	간행함